



종묘 제례악



학습 목표 종묘 제례악의 구성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왕조의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악(樂), 가(歌), 무(舞)의 일체를 말한다. 한국의 중요 무형 유산(현 국가 무형 유산) 제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세종 대왕이 ‘보태평’과 ‘정대업’을 작곡하였고, 약간의 개정을 거쳐 세조 때부터 “종묘 제례악”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종묘 제례 의식에 연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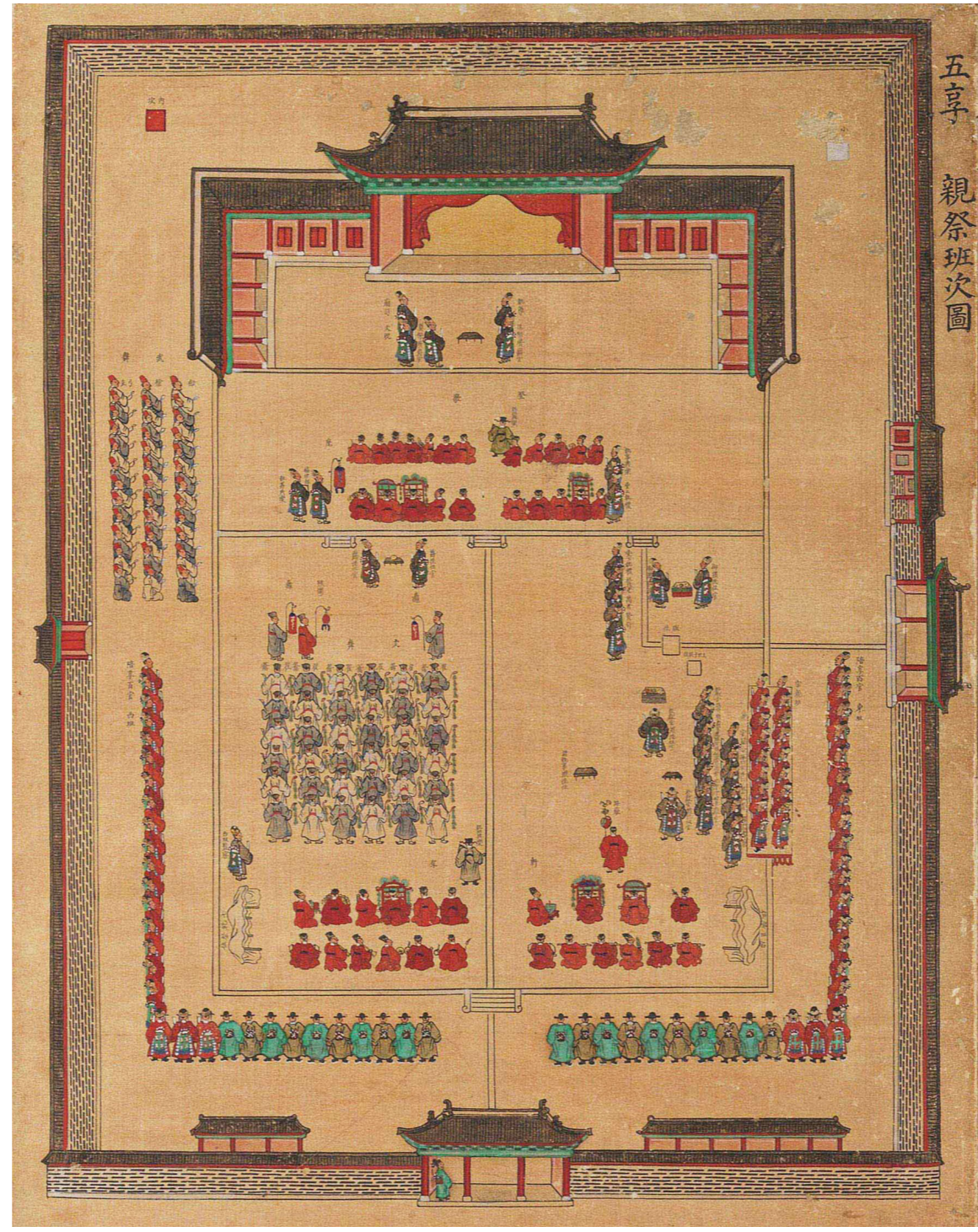
1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감상하고, 음악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해 토의해 보자.

악 (樂)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댓돌 위에 편성되는 등가와 댓돌 아래에 편성되는 헌가로 나뉜다.

등가에 사용되는 악기(댓돌 위에 위치)
편종, 편경, 대금, 당피리, 박, 축, 어, 장구, 방항, 절고, 아쟁



헌가에 사용되는 악기(댓돌 아래 마당에 위치)
편종, 편경, 대금, 당피리, 박, 축, 어, 장구, 방항, 해금, 진고, 태평소, 징



가 (歌)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보태평’과 ‘정대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악장이다. 조선 왕들의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11곡)과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11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장: 궁중의 제전이나 연례 때 악기 연주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를 말한다.



보태평 중 제곡 희문 국립국악원

♩ = 27

세 더 어 익 계 아 - 후 우 -
世 德 啓 我 後

*세덕계아후(世德啓我後): 대대로 덕을 쌓으시어 우리 후손을 여시니

무 (舞)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를 말한다. 일무의 일은 열을 지어 추는 춤이며, 팔일무는 총 64명(8행×8열)이 추는 춤이다. 보태평을 연주할 때 추는 문무와 정대업을 연주할 때 추는 무무가 있다.



문무(보태평지무)



무무(정대업지무)

학문의 덕
왼손에 악, 오른손에 적을 들고 영신, 전폐, 초헌에서 춘다.

군사상의 공
앞의 4줄은 목검, 뒤의 4줄은 목창을 들고 아헌과 종헌에서 춘다.

‘오향친제반차도’